

종계업이 나가야 할 방향



이 언 종

- 본회 종계분과위원장
- 신영농장 대표

새 천년, 용트림하듯이 경진년의 새해가 밝았다. 본래 닭은 새벽이 밝아오는 길목에 서서 여명을 알려주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영물이었다. 그런 닭이 지금은 인간의 영양 공급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면서 더욱 사랑 받는 축산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닭의 기상처럼 웅비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새천년부터는 국내외 모든 여건들이 '신지구촌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무역장벽이 완전 제거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이 외국산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역공세를 펼칠 경우 우리 양계산업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1. 의식전환 필요

그 동안 종계업계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생산성 향상을 기할 겨를 없이 경제난에 허덕이며 1900년대를 마감하였다. 더욱이 지난 1997년말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여파가 아직 식지 않으면서 종계·부화업자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부실을 정리하느라 아직까지 큰 고통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불황과 호황이 같은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호황보다 불황의 길이 더욱 길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종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종계인들은 우선적으로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 완전 탈바꿈하는 만큼 종계관련 정보도 보다 세분화 되고 빠르게 통신망을 타고 양계장에 도착할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이기적인 사고로 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종계·부화인들은 일단 병아리 값이 안정되면 단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그간의 흐름이었다.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최근들면서 병아리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종계업자들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100원 이하의 병아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해 부터는 협회에서 병아리조사 사업을 착수하여 모든 정보가 회원 및 생산자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병아리 생산물량을 샘플로 조사하여 수급조절에 보탬이 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백세미 생산 근절토록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불법병아리(백세미) 생산이다. 종계·부화업계에서는 농림부와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백세미 생산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으나 관계기관의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포기 제제로 국내 종계부화업계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백세미 생산량은 최근 급증하는 수입닭고기 물량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백세미 생산량만 줄일 수 있다면 육계는 물론 종계업계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

사실 이 문제는 백세미 생산으로 인한 질병 확산은 물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계

업계 뿐만아니라 육계산업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종계장들은 각종 통제와 규제속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불법 백세미 생산농가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결국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종계업계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하며 관련기관과 계속적인 협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도 점점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자조금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중의 하나는 자조금 사업이다. 지난 한해동안 자조금을 이용하여 닭고기 소비 홍보 소형 스티커를 제작 등 닭고기 소비에 앞장섰으며, 지난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병아리 판매금에서 5원씩을 거출하여 5천여만원을 거출하였다. 아쉬운 것은 참여농가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농가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마련과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농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거출한 금액중 1천만원은 이미 육계업계와 함께 닭고기 우수성 지하철광고를 실시하면서 닭고기 가격 상승 등 큰 성과를 얻고있는 중이다. 자조금 사업은 우리가 하나를 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이 자조금 사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연구해 나아갈 것이다.

4.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최근들면서 외국 닭고기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중국산 닭고기가 곧 재개방 될 경우 심각성은 더해진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종계 생산성을 보더라도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으며 몇개의 종계장들은 외국과의 차이가 없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요인을 서로 공유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닭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을 막아야할 계열업체들이 닭고기 수입에 참여했던 과거의 전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은 질병, 방역, 위생 문제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위생개념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종계의 강제환우 금지 등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세기동안 씨앗으로 일컬어지는 종계산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계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 등 항상 관심을 가져준 종계·부화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종계·부화인들의 단합이 우리 양계업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새천년을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자. **양계**